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이전작업 전국서 가장 빨라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들의 이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이전 로드맵이 서서히 완성돼가고 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작업이 다른 9개 혁신도시로의 이전 작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나주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관 대부분 부지매입·설계 예산 확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도 곧 청사설계 발주

◇이전 승인=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모두 17개. 이중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한국전파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등 6개 기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2월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23일 전파연구소가 이전계획을 승인받은데 이어 같은해 12월30일에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연수원이, 또 지난 6월8일엔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각각 이전을 승인받는 등 9일까지 모두 13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완료됐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승인 속도다.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관은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이중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오는 23일 공식 통합 후 이전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다른 4개 기관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돼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통합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재탄생돼 어느 혁신도시로 이전될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부산 혁신도시는 13개 이전 기관 중 6개, 대구는 11개 중 5개, 강원과 충북은 각각 12개 중 8개 기관이 승인을 대기하는 등 모든 다른 혁신도시가 나주혁신도시 보다 승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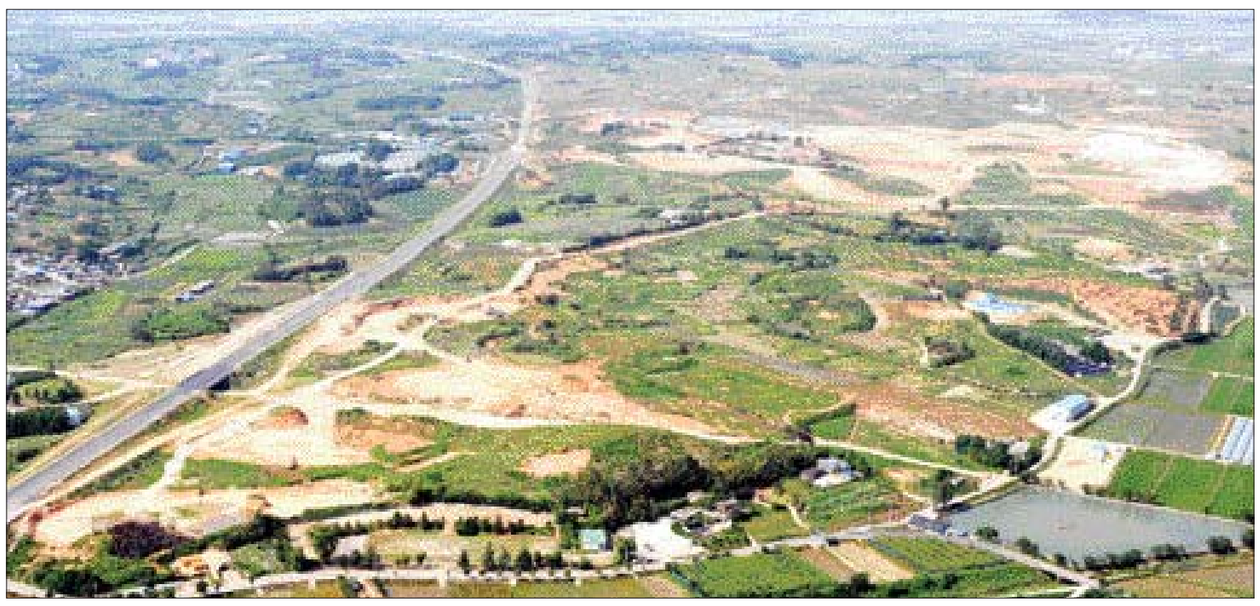
◇이전 예산 확보는=이전 최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총 이전예산은 4천175억원. 이중 올해까지 한전은 부지매입비 169억원과 청사설계비 50억원 등 모두 2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재개발원을 포함, 2천30억원의 이전 예산 중 부지매입비 140억원과 청사설계비 33억원 등 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한전KPS(주)는 청사 신축 예산 1천214억원 중 113억원, 한전KDN(주)은 1천358억원 중 80억원, 한국전력거래소는 943억원 중 89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369원 중 61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495억원 중 37억원, 우정사업정보센터는 697억원 중 17억원, 농업연수원은 645억원 중 11억원, 전파연구소는 533억원 중 10억원의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부분 이전 기관들이 이전 예산의 10% 미만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은 확보한 예산을 쓰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부지 매입 및 청사 건립=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중 청사 설계 공모를 실시한 뒤 경영상태를 봐가며 10월께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중 청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본사 설계계약을 체결할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오는 10월께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전KPS(주)는 오는 9월 부지매입과 청사설계 발주를 실시할 계획이나 이달 중 있을 본사이전 기본계획안의 이사회 상정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부지매입 본계약을 체결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 하반기에 청사설계를 발주한 뒤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달 중 청사 설계를 발주할 농업연수원은 내년 6월께 부지를 매입하고 9월에 착공에 들어가며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내년 2월께 부지를 매입, 6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KDN(주)은 올 4/4분기 중 부지를 매입하고 오는 12월께 청사설계를 발주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는 2012년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는 구간별로 15%~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확대순환형으로

# 총연장 42㎞…건설비 1조9천억
# 첨단지구~금남로 30분내 주파

오는 2024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지상고가 경량 경전철)을 이용해 광산구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광주 동구 금남로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하철 대중교통시대가 열린다.

광주 도심과 외곽지역을 아우르는 확대순환형 노선으로 추진되는 광주도시 철도 2호선은 기존 제1순환도로(백운광장~조선대~광주교대~운암동~광주시외버스터미널) 등 도로에 교각을 세우고 궤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오는 2011년에 착공해 2024년까지 14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사업비만도 1조9천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차질없는 국·시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주민민원도 예상된다.

◇어떻게 건설되나=확대순환형으로 추진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상고가(地上高架) 경전철방식으로 건설된다. 지상고가 방식은 지상에 궤도를 떠받치는 기둥 등 구조물을 만든 뒤 상층부에 열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을 놓은 방식이다. 노선길이는 모두 42.51㎞에 달하며, 노선은 시청~금호지구~월드컵 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지구~시청을 순회하는 환형(環形)으로 세워진다.

지상고가 경전철은 제1순환도로(백운광장~조선대~광주교대~운암동~광주시외버스터미널) 등 주로 도로에 세워진다. 정거장은 1㎞당 한 개꼴인 모두 40여곳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가 완성됐을 경우 소요 시간은 첨단지구~금남로까지는 30분, 전노선을 순회할 경우 1시간 3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2호선 건설과정에서 지선으로 광주역~버스터미널~광주시청(7.1㎞), 하남 운남지구~송정공원역(5㎞) 등 2개 노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기본설계를 거쳐 오는 2011 하반기 이후 시청~월드컵 경기장을 잇는 노선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따른 도시교통망 확충 차원이다. 전문가들도 1단계(2011년~2018년)로 시청~월드컵 경기장을 잇는 노선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2018년~2024년)로 잔여구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과제=2024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은 모두 1조9천6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비는 모두 1조1천437억원이며, 시비 7천877억원이다. 1조원대에 달하는 국비의 차질없는 확보와 함께 막대한 시비의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현재 정부가 녹색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액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방비 7천877억원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이다. 14년 동안 매년 500억~600억원의 재정부담을 감당할 정도로 시의 재정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2호선을 운행할 차량의 선정 과제도 있다. 광주시는 현재 '도심형 자기부상', '고무차륜AGT', '철제차륜AGT'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차량마다 장단점이 있어 선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2조3천억 전남 7조2천억 내년 국고 요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0년도 국고요청 사업비를 각각 2조3천115억원, 7조1천988억원으로 확정, 정부부처에 지원을 요청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산업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사업 등 계속·신규사업을 포함해 모두 132건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비 확보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확보액 1조6천492억에 비해 40.1%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이 38건 3천367억원이며, 계속사업은 94건 2조404억원이다.

신규 추진 사업은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 53억원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70억 ▲수소연료전지연구소 건립 80억 ▲환경엑스포 건립 20억▲북부순환도로 개설 100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은 ▲광산업 3단계 260억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700억 ▲진곡산단진입도로 건설 400억이다.

전남도도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낙후지역 SOC 확충 등에 필요한 2010년도 주요 국고요청 지역현안 사업비를 7조 1천98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예산확보액 5조 8천912억 원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신규사업이 187건에 1조 6천710억 원 그리고 계속사업이 109건에 5조5천278억 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영산호 배수갑문 및 통선문 확장 1천억 원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1천억 원 ▲F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 880억 원 ▲목포대양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 400억 원 ▲해양바이오연로 실증단지 조성 300억 원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주요 계속사업에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5천246억 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5천억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2천500억 원 ▲목포 신항 및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800억 원 등이 지원요구 리스트에 올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총 사업비 14조6천억 원) ▲목포~군산 간 서해철도 건설(〃2조5천500억 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연도교 건설(〃1조2천435억 원) ▲전남 동부권 순환경전철 건설(〃1조2천억 원)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사업비 신청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